

신곡의 종합적 배경 검토와 선악 상징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

이 나 미*

국문 초록

신곡의 역사적, 신학적, 심리학적 배경을 이해하여 신곡의 선악 모티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단테 시대의 관점에서 신곡의 심리적인 구조와 집단 정신을 고찰하여 예컨대 신화적 짐승들, 추락한 천사들, 저주받은 공간과 시간, 그리고 여성성 등등 다양한 신화소들에 대한 짧은 분석을 시도하였다. 신곡은 인간 심성의 신성성과 그 반대인 어두운 측면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들에 대해 훌륭하게 응답하는 작품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심성과 신성한 선악의 상들에 대한 연결을 회복하고, 의식화에 도움을 준다.

중심 단어 : 단테; 신곡; 분석심리학; 선악의 상징.

들어가는 말

단테는 명계를 여행한 후, “나는 영원하신 삼위를 믿습니다… 이것이 근원이며 이것이 불꽃입니다… 마치 하늘의 별처럼 내 안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그 만큼 내 말이 이분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¹⁾로 글을 맺지만, 지옥과 연옥에 대한 묘사는 선악의 본질과 양태에 대한 단테의 깊은 성찰에서 나온 것이다. 본고는 신곡에서 “선악”에 대한 제재들과 그 상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접수일 : 2022년 9월 22일 / 심사완료 : 2022년 11월 25일 / 게재확정일 : 2022년 12월 7일

*서울대학교병원

Address for correspondence: Nami Lee, M.D.,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101 Daehak-ro, Jongno-gu, Seoul 03080, Korea

Tel: +82-2-2072-3761, E-mail: nami6107@naver.com

단테 시대의 독자뿐 아니라 현대인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울림이 되는 선악과 관련된 모티프들을 심리학의 원형 및 이론에 근거해 분석해 보려고 한다.

신곡(c. 1308-21) 탄생의 역사 문화적 배경

700년이라는 시간을 넘었지만, 단테(1265-1321)의 신곡을 13세기에서 14세기, 이태리는 근대가 태동하는 유럽사회에 대한 이해없이 읽는다면 그 전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교역으로 부를 축적한 신흥 상업자본가와 그들이 후원하는 지식인과 예술가들은 현대와 크게 다르지 않게 갈등하고 좌절했던 피렌체(Florence)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교황 보나파키우스(Boniface VIII) 교황의 권력이 특히 잘 알려진 당시 교회, 귀족, 왕실, 신흥자본가들 각자가 복잡하게 얽혀 경제적 정치적 세력 다툼을 하던 시기다. 구엘프(Guelph 교황파)와 기벨린(Ghibelline 황제파) 분당의 갈등, 후에는 백당(White Guelfs)과 흑당(black Guelfs)의 분열 속에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던 단테가 엄청난 벌금을 끝내 물지 못하게 되면서, 사형선고까지 받은 후 망명생활을 하게 된 시대적 배경이다.²⁾

로마 제국 귀족의 후손이지만 주로 대부업과 제조업 등 상업활동을 했던 아버지 알리기에로(Alighiero)의 아들로 어머니가 어려서 일찍 죽고 아버지가 재혼한 후에는 손위 누이가 주로 돌보며 성장했다고 한다. 신뢰할 만한 전기가 있다기 보다는 신곡과 단테의 다른 작품 등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통해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뿐 아니라 단테의 일생을 추측하게 된다. 어린 시절에는 유형지에서 돌아온 브루네토 라티니(Brunetto Latini)와 플로렌스의 시인으로 사실리 학파의 영향을 받은 귀토네 다레조(Guitone d'Arezzo)에게 배웠다고 전해진다. 신곡을 쓰기 전인 1283년과 1291년에 보에티우스(Boethius)의 위로의 철학(*De consolation philosophiae*)의 영향을 받았고, 베아트리카체(Beatrice)에 대한 사랑이 담긴 시와 산문 형태가 혼합된 새로운 인생(*Vita Nuova*)을 쓰게 된다. 하지만 후에 베아트리카체가 다른 남자의 부인이 되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

1) Alighieri D, 허인(역) (2017): 《신곡》, 동서문화사, 서울, p770.

2) Jacoff R(ed) (2007): *Cambridge Companion to Dan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pp1-13.

지고 다른 여성에 대한 사랑에 잠깐 빠지기도 한다. 베아트릭체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뜬 후, 보에티우스 외 베르길리우스(Virgil), 루칸(Lucan), 키케로(Cicero),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 알베르투스 마그누스(Albertus Magnus) 등을 읽고 프란치스코 회와 도미니카 회의 정신에도 경도된다. 단테가 탄생한 13세기는 스콜라 철학과 신학이 융성하던 시기로, 그의 제정론(*De Monarchia*)에는 신학적 신념과 고민도 많이 담겨 있다.³⁾

정치적 어려움 때문에 망명생활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신곡은 이후 이태리 문학사뿐 아니라 세계 문학사를 바꾸게 된다.⁴⁾ 단테의 삶에 대해 기록한 보카치오(Boccaccio)의 언급은 개인적인 견해가 강해서 객관적인 사실로 결론짓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그러나 공화국 시민으로서 고전과 고대의 부활자로서 라틴어가 아닌 자기 지방의 언어를 사용해 문학사를 바꾼 인물로 평가한 견해는 설득력이 있다. 반면에 단테가 라틴전통에 들어가 있어 새로운 문화적 경향인 휴머니즘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 중세의 인물이라는 페트라르카(Petrarca)의 평가 역시 무시할 수 없다.⁵⁾

신곡에 등장하는 다양한 묘사는 당시의 종교적 틀을 깨는 인간 심성의 다양성과 깊이를 보여주는 창의적 시도였다. 그가 이름붙인 코메디아(*Commedia*)는 라틴문학의 신학적 철학적 산문과 베르길리우스(Virgil), 마르티아누스(Martianus), 카펠라(Capella), 베르타르드(Bernard), 실베스트리스(Silvestris) 등 중세와 이별하게 되는 독특한 장르의 출현이다. 북이태리 지방에 여전히 남아 있던 마니교(Manicheanism)의 선악 이분법적 세계관이 아직 남아있지만, 플로렌스 지방의 덜 경직된 구전 문학 등 고대 문화가 다양하게 녹아 있다. 가벼운 비유가 들어 있는 유쾌한(Comic) 시, 종교적 내용이 담겨 있는 시, 프랑스의 기사문학, 음유 시인들의 연애 시 등등의 영향도 관찰이 된다.⁶⁾ 신곡의 뿌리인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 아이네이드(혹은 아이네이스[Aeneid/Aeneis])의

3) Barbi M (1933): "Dante: Vita, Opera e Fortuna", in *Encyclopedia Britannica*, Benton W (Publisher), Vol 7 (1969), Chicago Encyclopedia Britannica Inc, Chicago, pp59-60.

4) Mazzarella A, 김덕규(역) (2021): 《단테와 용 I: 신곡의 분석심리학적 이해(개론과 지옥편)》, 융심리학 연구소, 서울, p42.

5) 임병철 (2014): "단테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보카치오와 페트라르카 논쟁", 《서양중세사연구》, 34, pp183-215.

6) Mambrol N (2021): "Analysis of Dante's Divine Comedy", *Literary Theory and Criticism*. Feb 02 2021, <https://Literariness.org>.

영향 또한 깊고 넘어가야 한다.⁷⁾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이네이아스(Aeneas)가 그리스전에서 패배 후 여성인 데이포베(Deiphobe)와 죽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지하세계로 내려가는 장면은 신곡의 중요한 배경과 유사하다.⁸⁾ 참고한 책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는 원칙이 없던 시기였고, 특별히 단테가 창작 배경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중요등장인물로 베르길리우스를 설정하였으니, 단테는 작품 그 자체로 자신이 받은 영향을 밝힌 셈이다.

단테는 이와 같이 여러 고전 저작들, 라틴어로 쓰여진 철학서들이나 음유 시인들의 짧은 연애시 등을 통합하여 새로운 문학 장르를 만든 셈인데, 내용은 비록 비극적이지만, 전통 그리스 비극의 플롯이나 구조 형태를 따르지도 않아서, 주인공(protagonist)과 반동인물(antagonist)간의 갈등과 기승전결의 형식에서 벗어나 있다. 이후 코메디아(Comedia)는 16세기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희극의 형태로 발전하지만, 신곡에 코메디아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를 단테가 신곡을 이태리 토속어로 쓰면서 자신의 스타일과 어휘들이 코메디에 적합하다고 언급했던 점과 처음에는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부분은 기쁨으로 끝났다는 점을 고려해 코메디에 어울린다고 언급한 학자도 있다.⁹⁾ 또 단테가 과거시나 라틴 철학과는 달리 풍부한 상징세계를 구현해 놓았기 때문에 문학사적 성취뿐 아니라 후대의 다양한 연구가들이 관심을 갖게 된 큰 산이 된다. 사형선고를 받은 후 떠난 망명생활에도 불구하고, 생명력 있는 이태리 방언을 구사하여 극적인 장면들을 역동적으로 서술했다.¹⁰⁾

한편, 단테의 지옥과 연옥 묘사는 지구를 평평한 동그라미로 표현한 다른 지도나 도상들과 달리 구체(공) 같은 삼차원적인 모습으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대 정신을 엿볼 수 있게 한다. 13-4세기 이태리에는 이미 고대 그리스의 꽤 많은 자연과학 저작물들이 크레모나의 제라르(*Gerard of Cremona*) 같은 번역가들에 의해 소개되고 있었다.¹¹⁾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주장하기 전

7) Clarke M (2014): *Story of Aenas*, Echo Library,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International Kindle Paperwhite, pp15-18, pp42-49.

8) Isidore, De Orbe in Etymologiae XIV.2 in O'Neill T (2016): *The Great myths 1: the Medieval Flat earth, History for Atheists*, historyforatheists.com.

9) Mambrol N (2021): "Analysis of Dante's Divine Comedy", *Literary Theory and Criticism*, Feb 02 2021 <https://Literariness.org>.

10) Benton W(Publisher) (1969): *Encyclopedia Britannica*, Vol12, pp716-718.

11) Isidore, De Orbe in Etymologiae XIV.2 in O'Neill T (2016): Ibid..

지구가 평평하며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믿는 견해가 대부분이었지만, 6세기의 세비유(Seville)의 주교 이시도르(Isidore)는 지구는 바퀴와 같다고 말한 바 있다.¹²⁾ 신곡 역시,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 그리스의 자연철학자들의 영향이 스며들어 있다. 천문학자 프톨레미(Claudius Ptolemy 100-170 AD)의 알마게스트(Almagest)등 아랍을 통한 그리스의 지리적 상향력이 그 예이다. 신곡의 지옥편 33장에는 아예 프톨레메오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마카베오 상 16장 11-16절에 나오는 살인자이자 예리고의 수장인 프톨레마이우스¹³⁾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천문학자 프톨레미에 대한 우회적 암시일 가능성도 있다. 물론 단테가 묘사한 고깔을 거꾸로 하고 있는 듯한 지구 핵의 묘사는 프톨레미의 천동설 이론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단테의 지옥은 자연과학자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내면의 심상을 언어로 표현하는 신화적 작업이기 때문이리라.

지구 반대인 남반구로 들어가고 얼음 덮인 땅으로 배신한 인물들이 얼어 붙어 고통을 받고 있는 제 9옥, 불이 드문드문 보이거나 끓는 역청이나 똥물 속에 악인들이 잠기어 있거나 타고 있는 제 8옥, 폭포로 연결되어 있지만 주로 황량한 사막의 공간인 제 7옥, 불을 뿜고 있는 무덤들이 있고 이교와 이단들이 문혀 불태워지고 있는 제 6옥, 불과 수증기와 물이 섞여 있는 제 5옥, 비통의 깊은 골짜기로 덕이 있는 이들이 있어서 완전히 어두운 곳이 아닌 푸른 잔디밭도 있는 곳도 있는 제 4옥,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는 장면들은¹⁴⁾ 지리적 묘사라기 보다는 내면의 아픔을 묘사하는 알레고리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속에 등장하는 이러한 삼차원적 묘사는 신곡이 근대문학으로 가는 가교이자 지리학과 천문학에 영향을 준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성취 중 하나다.¹⁵⁾

선악 묘사의 신학/철학적 뿌리

신곡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을 하기 전에, 내용 자체가 갖는 신학적, 철학적

12) Clarke M (2014): *Story of Aenas*, Echo Library,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International Kindle Paperwhite, pp15-18, pp42-49.

13) Isidore, *De Orbe in Etymologiae XIV.2* in O'Neill T (2016): *Ibid.*

14) Pieper J, 신창석(역) (2011): 《토마스 아퀴나스 그는 누구인가》, 분도출판사, 서울, pp28-29.

15) Bressan D (2016): *Dante's Inferno: The Geology of Hell.*

배경과 의의는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배경과 등장인물들과 주제가 기독교적 전통 속에 변주되어 진행되지만, 그리스 전통의 영향 또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지옥과 연옥으로 가는 인도자로서 로마의 비기독교도 시인 베르길리우스, 라틴 시인인 스타티우스(Statius), 루칸(Lucan), 오비드(Ovid)의 작품도 인용된다.¹⁶⁾ 연옥에서 호머(Homer), 호레이스(Horace), 세네카(Seneca), 소크라테스(Socrates), 플라톤(Plato)등도 만난다. 천국에서는 성 베르나르드(Saint Bernard of Clairvaux),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성 아우구스티누스(Saint Augustine) 등 기독교의 성인들로부터 우주의 구조와 시작에 대해 배우고 지옥과 연옥에서의 여행을 완성하게 되는 과정도 그려진다. 위대한 베드로의 후계자가 좌정한 거룩한 고장인 이태리가 승리와 교황 법의의 장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아이네이아스가 미리 알아챘다고 말한 점(신곡 지옥 2: 24-25), 또 베아트리체가 “내 돌아가고자 하는 그리(천국)로부터 왔나니 내 장차 주님 앞에 대령하게… 그대를 들어 그 님께 기리리라(신곡 지옥 2:72-3)”고 말하는 대목 등 기독교 신학 체계에 기반한 주제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¹⁷⁾

성경에는 악마(devil), 악령(demon), 사탄(Satan)이 모두 등장하는데 악마(Devil)은 그리스어에서 비난하고 중상하는 자라는 뜻에서 나왔고, 신약의 마태오 4.1부터 등장한다. 신명기에는 하느님에게 하는 희생제의를 대신 받는 악령 혹은 잡신(demon)들이 등장한다. 하느님이 아니라 그들이 모르고 조상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새로운 잡신들에게 희생물을 바쳤기 때문이다(신명 32.17). 하느님이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겨 자신들의 아들과 딸을 마귀(demon)들에게 바친다는 대목도 있다(시편 106. 36-38). 그리스어 데몬(Damon)은 초자연적인 신의 인격인 theos와 달리 데몬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과 개입의 함의가 있다고 한다.¹⁸⁾ 사탄은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어 대항하고 유혹하거나 도발하는 의미를 가져서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만,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특별히 분별해서 쓰지는 않는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악마는 스스로 영원한 빛에 동참하지 않아 어둠이 되었고 좋은 점을 잃어 버린 존재(*Privatio boni*)라 결론 지은 바 있다. 여기서 더

16) Jacoff R (1993): *7-Dante and the classical poe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pp100-119.

17) Alighieri D, 최민순(역) (2021): 《단테의 신곡 상》, 가톨릭출판사, 서울, p12.

18) Britannica.com/topic/demon-Greek religion.

나아가 성 토마스의 천사와 악마에 대한 묘사는 훨씬 더 분화되고 자세하다. 성 토마스는 과연 천사가 감각, 지각, 이성, 판단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면서 하느님과 인간의 중간단계라고 말하면서 천사와 악마에도 여러 단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선악의 구별까지도 선과 악이 다르다는 점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결코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¹⁹⁾ 예수는 사막에서 돌을 빵으로 바꿔 보라는 악마의 유혹을 받을 때, 대거리를 하며 증명하려고 하는 대신, “인간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존재의 부조리한 본질을 지적한 것이 아닐까.

단테는 베르길리우스나 아리스토텔레스 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인용했다. 2021년 바티칸도 “기독교 시인(Christian poet)인 단테가 희망의 예언자로서 궁극적인 목표로 향하는 길에 대한 안내자”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미 1921년 베네딕토 15세는 단테를 가톨릭 신앙으로부터 얻은 영감을 작품으로 승화시킨 사람이라 평가한바 있으며, 프란치스코 현 교황은 비록 그가 당시 부패한 교회와 싸우며 고난을 견뎌냈으니, 하느님으로 향하는 영원한 축복의 여정에 있었다고 평가했다. 신곡의 세 여성성은 어머니 같은 자비를 상징하는 성모 마리아, 희망의 상징인 베아트릭체, 믿음의 상징인 루치아로 지옥과 연옥에서 만나는 악의 군상들과 비교되는 사리분별(prudence)을 도와주는 존재로 요약할 수 있다.²⁰⁾

신앙이라는 세계에 갇혀버린 중세적 사변을 극복하고, 구체적인 현실 세계에 대한 보다 이성적 접근을 시도했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스승이자 철학자였고²¹⁾ 단테도 천국편 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으니 가톨릭 교계에서는 신곡을 종교적 서사시로 당연히 해석할 수 있겠다.

융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신곡의 선악 상징 이해

그렇다면 전통단테의 신학적 세계관을 융 심리학의 심리학적 관점으로는 어

19) Aquinas T (1998): "Thomas Aquinas Selected writings" *Summa Contra Gentiles* (1259-65) 3 The Human good Ch. 39, Penguin books, London, p282.

20) Esteves JA (2021): Pope Francis: Dante, who died 700 years ago is still a 'prophet of hope' today. *America the Jesuit Review*.

21) Pieper J, 신창석(역) (2011): 《토마스 아퀴나스 그는 누구인가》, 분도출판사, 서울, pp28-29.

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단테가 보여주는 천국과 지옥의 차별은 결국 선과 악의 대립적 개념에서 나온 심상의 결과일 것이다. 정신치료자인 Hawxwell은 Mazzarella의 단테 연구에 뒤이어 단테의 신곡이 치료의 입문과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본인이 장기적인 정신치료를 견뎌낼 때 신곡의 도움을 받았다고 고백한 바 있다.²²⁾

융과 화이트 신부의 만남과 이별에서 보듯, 악을 선함의 결핍(privation boni)으로 보는 기독교적 입장과 악이 사위(Quarternity)의 하나로서 중요한 인간 심성의 한 축으로 보는 융 심리학의 입장은 서로 대립한 채²³⁾ 화이트 신부의 이른 죽음으로 끝내 해소되지 못했다. 그러나 융이 말하는 악은 심리학적 개념이고, 화이트 신부의 악은 신학적 개념의 차원이므로 양쪽의 소통이 왜곡된 것은 선악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한 오해가 아니었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융이 말한 ‘악’의 개념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악’의 개념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임상 심리학자들은 악인의 성장과정, 사회적 상황 등 그 배경을 이해하여야 하는 입장이고, 또 스스로 선함을 앞으로 내세우는 이들의 무의식, 혹은 감추려고 하는 내밀한 사생활에 숨어 있는 악함을 알아야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과 타인의 “악함”에 대해 토로하는 내담자들을 도와줄 수 있다. 반대로 기독교적 입장에서 말하는 ‘악’은 하느님이라는 ‘완전한 전체정신’에서 떨어져 나가, 자신이 구원되는 것을 거부하는 오만(*hubris*)과 나태(*segnities*)와 거짓(*falsus*)과 허영(*vanitas*)을 의식적으로 선택한 상태다. 6세기의 교황 그레고리오 1세와 요한 카시아누스(Ioannes Cassianus)가 종합해 정리한 칠죄종(七罪宗 *septem peccata capitals*: 교만, 인색, 시기, 분노, 음욕, 탐욕, 나태)²⁴⁾이라 불렀다.

융은 의학과 철학의 토대에서 분석심리학이라는 방식으로 기독교신학의 선악을 해석하려 했고, 화이트 신부는 신학의 토대로 다시 분석심리학을 인식했다. 따라서 양자가 보여주는 언어의 차이가 선악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태도의 차이와 반드시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안타깝게도 융과의 통합적 대화를 마

22) Hawxwell Dante's Divine Comedy and modern depth therapy: 18 Dec 2014. *Psychodynamic Practice, Individuals, Groups and Organisations*. Volume 21, 2015-Issue 1 <https://doi.org/10.1080/14753634.2014.989713>.

23) Lammers AC, Cunningham A (2010): *Jung-White Letters, New Blackfriars*, Vol. 91, No. 1033, pp354-357.

24) Lammers AC, Cunningham A (2010): *Jung-White Letters, New Blackfriars*, Vol. 91, No. 1033, pp.354-357.

치기 전 화이트 신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신학과 분석심리학이 서로 충돌한다는 오해는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었고,²⁵⁾ 오해와 불신은 대중이나 학자들에게 남아 있다고 본다.

신약에도 죽지 않는 벌레들과 꺼지지 않는 불로 벌받는 사악한 자들(마르코 9:48)과 악한 자들로부터 구별되는 선한 이들의 구원(마태오 25)이 언급되지만, 예수의 간결한 지옥 묘사: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듯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마태 25: 41-46).”는 선악이 이분법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옥으로 떨어진 루시퍼가 한 때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라는 설정은 아그리파 같은 신학자들²⁶⁾ 혹은 성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를 포함한 교부들의 지옥 묘사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융 역시 단테의 머리 셋 달린 짐승, 즉 루시퍼가 지하 삼위(chthonic triad)의 상징이 천상의 삼위일체와 대극을 이룬다고 해석한 바 있다.²⁷⁾ 악함의 뿌리가 선함이었다는 상징으로 이해한다면, 신학과 분석심리학의 선악에 대한 입장이 근본적으로 꼭 다른 것은 아닐 수 있겠다.

단테의 선악에 대한 묘사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단테의 개인 체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주관적인 악의 체험과 연결되어 있기에 단테가 귀족사회의 도덕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던 것²⁸⁾을 선악, 그 자체의 핵심에 대한 신학적 천착이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오히려 신곡 속에 등장하는 상징들은 개인적인 체험 이상의 원형적인 심성을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선악과 연결시켜 심리학적으로 이해해 보는 것이 치료자에게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25) Lammers AC (1994): *In God's shadow: the Collaboration of Victor White and C.G. Jung*, Paulist Press, Mahwah.

26) St. Augustine. Tr. by Bettenson, H (2003): *Concerning the City of God against the Pagans*, Bk XI Ch. 10. Penguin Books, London, pp440-441.

27) Jung CG (1977): he phenomenology of the spirit in fairytales in *The archetype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P234.

28) <https://digitaldante.columbia.edu/>.

1. 세 마리 짐승과, 세개의 목을 가진 케르베루스

지옥 Canto 1에는 죄의 비유로 무서운 숲을 상상하고 거기서 세 마리의 짐승: 본능적 욕망의 상징인 표범(*lonza*), 오만의 상징인 사자(*leone*), 교활한 탐욕의 상징으로 암늑대(*lupa*)가 등장한다.²⁹⁾ 하지만 이 짐승들을 한 단어의 상징으로 가두는 것은 심리학적으로나, 문학을 이해하는 태도로 보나 옳지 않다. 단테가 이들 짐승을 과연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 그 시대의 집단 의식과 무의식이 어떻게 단테에게 작용했는지는 추측의 영역이다.

이들 세 짐승은 단테를 공포와 좌절에 빠트린다. 하지만 바로 이 때에 현자인 베르길리우스가 나타나 “사냥개가 이들을 고통스럽게 죽게 할 때까지 그 놈들은 더욱 많아지리라./이 사냥개는 흠도 쇠도 말고 오직 슬기와 사랑과 덕으로 살리니… 너는 나를 따르라, 내 너의 길잡이 되어 여기서 너를 영원한 곳으로 이끌어 주리라(지옥 1: 100-112).”라고 말하게 된다.³⁰⁾ 이 세 괴물을 죽이는 사냥개의 존재를 일깨워 주고 또 이 괴물들을 만나면서 단테의 긴 여정, 즉 신곡이 시작된다. 어둡고 깊은 무의식의 세계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포와 직면의 시기를 거쳐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대목이다.

구약은 추락한 천사에 대해 “땅 및 저승은 너를 위하여… 세상의 수령이었던 그림자들을 모두 깨우고… 너도 우리와 똑같이 되었구나 하고 말하네. 너의 영화도 네 수금소리도 저승으로 떨어졌구나. 구더기가 네 밑에 요로 깔리고 벌레가 네 이불이 되었구나/어찌하다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빛나는 별, 여명의 아들인 네가! 너는… 생각했었지… 하느님의 별들 위로 나의 왕좌를 세우고 북녘 끝 신들의 모임이 있는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나는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져야지.’ 그런데 너는 저승으로 구렁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이사 14 9-15)”라고 묘사한다. 질투에 사로잡힌 루시퍼(신곡 1: 109)의 벌레 같은 이미지는 하느님보다 더 위에 좌정하려는 오만의 마음을 구체화한 것이다.

단테는 지옥 제 34곡에서 브루투스, 유다, 카시우스의 무리가 루시퍼에게 물어 뜯기고 있다면서 “거기 아무런 굴도 없음(신곡 지옥 34:7)”을 지적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악은 선한 하느님의 부재(*privation boni*)라는 철학적 명제의 공간적 구체화가 아닐까. 무력, 무지, 무애(증오)의 상징으로 삼위일체의 반

29) Alighieri D, 최민순(역) (2021): 앞의 책, pp37-42.

30) Alighieri D, 최민순(역) (2021): 앞의 책, pp47-48.

대쪽에 위치하는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계속해서 깃이 없는 박쥐의 날개가 등장하는데, “세 가닥 바람이 그로부터 일게 마련이니 코키토스(지옥의 가장 아래에 있는 얼음 연못 31: 122)가 모두 얼어 버리는 것이더라. 그는 여섯 눈구멍으로 울고 세 조각/턱 위로는 눈물과 피맺힌 침을 똑똑 흘리더라./입이란 입은 이빨로 한 죄인을 받기는 게… 이렇게 세 놈을 아파 못 견디게 굴더라(신곡 지옥 34: 49-55).”³¹⁾라는 구절도 삼위 일체의 정반대, 혹은 천사의 그림자를 묘사하는 구절로 이해할 수 있다.

단테가 사용한 숨(*spira: breathe*)은 삼위 일체에서 성령을 말하는 *spiration*과 어근을 공유하는데 이는 지옥의 루시퍼가 사랑과 생명 대신 증오와 죽음을 상징하는 반 성령의 존재라는 것을 암시한다.³²⁾ 악의 상징인 지하 삼위와 세 마리 짐승은 또한 단테의 천국에 나오는 신비한 장미의 상징과 대극을 이룬다. “천재의 꽃망울을 지녔거든 이제 스스로 이도 저도 잃어버렸던 나(34: 25)”라는 자신에 대한 언급은 베르길리우스, 단테, 그리고 루시퍼 모두에 대한 언급으로도 들린다.

물론 세 짐승의 상징이 항상 악으로 설정되지는 않는다. 예제키엘의 환시에는 주님의 영광이 깃든 커룹(천사)의 날개 밑에 커룹, 사자, 독수리의 얼굴이 있었다. (예제키엘 10. 14-16) 또 묵시록에도 네 생물이 등장한다. 사자, 황소, 사람, 독수리로서 날개를 여섯 개씩 가졌고, 사방으로 안으로 눈이 가득 달려 있으면서 거룩하시다.” 라는 구절이다. (묵시 4.7-8) 이에 근거해 성 이레니우스는 사람의 아들을 강조한 마태오 복음(마태 1:1, 18), 사자와 같이 등장하는 요한을 언급한 마르코 복음(마르코 1:3), 황소처럼 희생당하는 하느님(2 사무엘 6)이 등장하는 루카복음(루카 1), 독수리 같이 하느님을 묘사하는(요한 1: 1-3, 14) 구절들을 언급했다.³³⁾ 네 동물이 4 복음서의 상징으로 보는 전통이다. 단테가 베르길리우스 입을 빌려 서술한 대로 사랑과 지혜로 이끈다면 선한 존재로 바뀔 수 있다. 루시퍼가 본래 천사였지만, 거만한 마음으로 배신하여 악마가 되었다는 가톨릭 전승의 전도다.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본능

31) Digital dante.columbia.edu, *The Divine Comedy with Commento Baroliniano*.

32) Rainwater Robert (1990): “Sheol”. In Mills, Watson E. (ed.), Mercer University Press, Macon, p819.

33) Saunders W (2020): What are the symbols of the four Evangelists? Catholic exchange. <https://catholicexchange.com>.

이 저지른 악행을 정화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짐승으로 종종 상징되는 우리 안의 본능, 욕망 들도 우리가 그 본능과 욕망을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선하고 때로는 악하게 변환할 수 있지 않은가.

2. 신곡 시공간 속의 선악 상징

거의 모든 예술작품의 지형학적 배열은 내면의 정신적 배열을 반영한다. 단테가 묘사한 지옥과 연옥과 천국은 당시의 중세적 천문학적 개념을 반영하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사적 경험을 역사적 맥락에서 시간적 순서와 공간적 배열의 재창조라는 예술적 작업으로 승화시켰다.³⁴⁾ 창조설화에서도 신이나 데몬이 인간에게 찾아올 때 “지리학적 지점에서 변형되고 구체화된다.”³⁵⁾ 문학이나 예술작품은 그 반대의 과정, 즉 내적인 환상을 공간과 시간이라는 구체성을 입혀 묘사하는 것인데, 신곡의 공간 역시 단테의 외부 상황뿐 아니라 내면의 콤플렉스가 반영되었다. 단테가 지나는 어두운 숲은 생명과 창조 휴식의 공간이라기 보다는 낮선 조우, 길을 잃음, 외로움 등등 공포와 좌절을 안겨주는 곳의 의미가 큰 이유는 당시 그가 처한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옥에 가기 위해 처음으로 거쳐야 하는 숲은 베르길리우스나 단테에게 모두 입무식의 사면처럼 거쳐야 하는 시련이다. 그나마 빛과 푸르름도 함께 있었던 숲에 비해 지옥은 불, 끓거나 더러운 물, 광풍, 사막 등 생존을 위협하는 극한의 이미지로 가득하다.

끔찍한 공간과 악의 체험을 연결시키는 관점은 구약을 비롯해 고등 종교나 하등종교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보인다. 구약의 노아 뿐 아니라 많은 문명권에서 홍수를 큰 벌로 기록하는 점, 소돔과 고모라뿐 아니라 네로 황제 시대의 로마, 런던의 대화재 등이 일종의 징벌로 인식되는 식으로, 공간을 파괴하는 재앙을 인간은 악과 관련시켜 이해한다. 질병, 가뭄, 흉작 등 모든 불행을 사악한 정령 탓으로 돌린 뉴브리튼 섬과 뉴칼레도니아 원주민들과 폭풍이 휘몰아 치면서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를 낼 때 재앙을 옮기는 망령의 소리를 들은 배핀랜드의 에스키모가 체험한 공간들이다.³⁶⁾

신곡 속 지옥의 구조는 히브류 성경의 세울(*Sheol*), 즉 어둠과 침묵의 공간보

34) Mambrol N (2021): Analysis of Dante's Divine Comedy Literary, *Theory and Criticism* <https://Literariness.org>.

35) Von Franz ML, 김현진(역) (2019): 《창조신화 : 인간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의식화 과정의 모델》, 한국융연구원, 서울, pp302-303.

36) Frazer JG, 신상웅(역) (2017): 《황금가지》, 동서문화, 서울, pp799-805.

다 훨씬 더 자세하게 분화되어 있다. 그러나 만족을 모르는 짐승과 악한 자들이 불로 벌을 받고(말라기 4:1과 유사), 신체가 썩어가며(이사야 66:24와 유사), 모욕과 경멸을 받는다(다니엘 12:2와 유사) 심연이라는 점에서 구약이 묘사하는 악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유대전통에서 말하는 게헤나(Gehenna)에는 죄의 경중에 따라 고문당하는 공간의 이미지도 포함되어 있다(여호수아 15: 8, 이사야 66: 24). 게헤나(Gehenna), 즉 히놈(Hinnom)의 계곡은 특히 아이들이 희생 제의로 바쳐지는 곳이며 똥과 깨진 그릇 같은 것을 버리는 장소로 심판의 날이 오면 용광로처럼 불타고 악인들이 모두 불타 재로 변하는 곳이다(네헤미야 11.30, 에레미야 8.3). 에녹서(The first book of Enoch)에는 역병과 통증으로 고문 받는 추락한 천사들의 이미지가 등장한다(에녹 1-5, 21-22).³⁷⁾ 신약에서도 역시 불에 타고(마태 5.22, 18.9) 고문을 당하며(루카 16.23) 악인들의 영혼과 몸이 영원히 벌받는 장소이다(마태 5.29-30, 10.28 마르코 9:45-7).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옥에서 모든 존재들이 저주를 받아 끝없이 불에 타면서 죽지 않고 고통받는 곳³⁸⁾이라 정의한다.

세례 받지 못한 아이들이 들어가는 곳, 죄는 짓지 않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선한 이들이 죽고 가면 간다고 중세 유럽 신자들이 믿었던 림보(limbo)에 대한 개념은 11세기 즈음부터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당시 귀족과 평민이라는 완벽한 두 개의 계급만 있었던 고대나 중세와 달리 신흥 부자 계급이 등장하면서 계층의 구별이 모호해진 사회적 상황과도 연관이 된다는 입장도 있다.³⁹⁾

아우구스티누스나 단테의 불지옥에 대한 표현은 마치 꿈 속에서 보이는 환시와 비슷한 성격으로, 영적인 경험일 수도 있지만, 악한 이들의 죄의식과 고통이 구체화된 세속적인 공간일 수도 있다. 지옥의 불은 기독교적 신화세계 뿐 아니라 많은 창조 신화에 등장한다. 폰 프란츠는 “(가열과 명상의 이중적인 뜻을 갖고 있는) 타파스를 통해 브라만이 펼쳐지고 브라만에서 양분이 생겨나며, 양분에서 호흡과 영, 진리, 세계가 생겨나고, 작업을 통해 영원성이 생겨난다... (아트만은) 물에서 푸루샤를 끄집어내 형태를 만들었다. 그는 그것을 부

37) Winter J (2015): *The Complete Book of Enoch*, Ch. 3, pp16-17 Winter Publication. <https://archive.org, ia801001.us.archive.org>.

38) Saint Augustine (2003): *City of God*, Penguin Books, London, Bk 21. Ch 9. pp983-985.

39) <https://rmc.library.cornell.edu/visionsofdante/glossary.php>.

화했는데, 입은 알처럼 벌어져 거기에서 말이 튀어나왔고, 말에서는 불의 신이 튀어나오고…”라고 우파니샤드를 인용한 바 있다.⁴⁰⁾ 신곡 속 지옥불의 상징이 반드시 기독교에만 국한된 선악 심판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다. 선악의 심판을 넘어서는 불과 물의 동시적 등장은 지옥, 연옥, 천국에서 벌어지는 연금술적 과정으로 이해해도 가능할 듯 싶다.

융은 과학자의 불과 관련된 꿈을 소개하면서 “마음의 지하에 존재하는 완전히 다른 측면이 통합되는 과정은 종교적 도그마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융의 내담자는 교회의 정화의식과 관련된 상황 이후, 바그너의 불의 음악 (Fire Music: 아마도 Die Walküre Magic Fire Music WWWW 86b을 의미하는 듯)을 연상시키는 산이 불타는 장면이 등장하는 꿈을 보고한 바 있다. 융의 피분석자는 버나드 쇼의 “꺼지면 안 되는 성스러운 불”이라는 구절을 언급했는데, 융은 이 꿈에 대해 확충을 계속하면서 초대 교부의 강론집에 등장하는 *qui iuxta me est, iuxta ignem est, m qui longe est a me, longe est a regno* (내 곁에 있는 이들은 누구나 불과 가까이 있는 것이고, 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은 천상 왕국에서 멀어지는 것)이라는 구절을 언급하기도 했다.⁴¹⁾ 물과 세례로 표상되는 정화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 같은 열정으로 단련해 나가지 않으면서 진정한 신앙을 바랄 수 있겠는가. 평범한 사람들 역시 끊임없이 스스로를 씻고 돌보지만 다시 불로 단련하는 과정을 나름 경험하며 고통스럽지만 성장과 변모의 보람을 꿈꾸는 것이다.

3. 여성성과 선악의 상징

신곡의 주인공 베아트리체나 성모 마리아뿐 아니라, 연옥 문에 단테를 데려다 놓았던 루치아(연옥 9), 형클어진 머리채로 가슴을 휘덮으며 털 많은 살갓을 돌리고 있는 만토(연옥 20: 52-53), 시동생 Paolo와의 사랑 때문에 남편에게 살해당해 지옥에 떨어진 프란체스카(지옥 5곡) 등의 다양한 여성들이 등장한다. 프란체스카에 대해서는 부드럽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찬탄하며 안타까워한다. 다음은 톨로메이 가문에 속한 시에나의 피아(Pia)로 피에트라네의 넬로와 혼인했으나 새로운 정부를 맞기 위한 남편에게 살해당했거나 혹은 자살했을

40) Von Franz ML, 김현진(역) (2019): 앞의 책, pp209-211.

41) Jung CG (1977): CW 11, *Psychology and Relig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p35-36.

수 있는 여성이다. 폭력 때문에 죽었고(연옥 5. 52), 그녀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은 남편만이 알 것이라고 언급한다. (연옥 5. 133-6) 또 천국의 바닥에 있는 피카르다 도나티 Piccarda Donati(연옥 23)나 콘스탄체(천국 3)처럼 수녀가 되려고 했으나 강제로 결혼을 해야 했던 인물들도 있다. 연옥 19편에서는 사이렌에 대한 꿈을 꾸다. 꿈속에서 단테는 사이렌의 노래에 혼을 뺏기게 되지만 베르길리우스가 나타나 사이렌의 옷을 벗겨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 신곡의 중요 테마 중 하나인 덧없는 외면에 대한 경고의 모습이지만 여성을 잘못된 약속과 욕망의 대상이거나 화신으로 이해했다고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잔인한 복수의 화신 메테아(지옥 18 94), 복수의 세 여신 푸리에(지옥 9 37), 딸을 안는 청년에게 복수하는 페이스스트라토스의 부인(연옥 15 100), 남자들을 죽인 램노스 섬의 여자들, 아버지를 죽인 것처럼 가장하고 여왕이 된 힌시필레(지옥 18), 허리에는 초록빛 바다뱀, 머리에는 실뱀과 뿔뱀이 돋아나 있는 피로물든 세 복수의 여신(지옥 6), 불화와 고통의 씨를 뿌리는 메가이라, 질투의 여신 티시포네, 복수의 여신 알렉토, 원래 미녀였지만 아테나의 미움을 받아 머리털이 뱀인 괴물로 변한 메두사도 등장한다(지옥 9). 물론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은 악한 남성들이 등장한다. 지옥의 중심 Malebolge를 비롯해 지옥과 연옥에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두쟁이들(Panderers), 유혹자들, 아침꾼 등이 다양하게 등장하기에, 여성 상징은 선과 악의 측면을 함께 내포한다.

용의 관점에 기대자면, 결국 악한 여성들과의 조우 끝에, 성스러운 세 여성 베아트리체, 성모 마리아, 루치아가 선함의 상징으로 단테를 지옥과 악으로부터 구해주었다는 것으로 요약해도 무방할 것이다.

신곡에 나타난 여성들은 단테의 아니마 상들로서 신적인 동시에 인간적이다.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만나기 위해 지옥과 연옥을 통과하여야 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지옥에 가야 만난다는 점에서는 선악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천상의 비너스(Venus urania, the heavenly Venus)와 세속적 비너스(Venus pandemos, the profane Venus) 적 측면을 다 갖고 있는 아니마는 이 두 대극 사이에 있는 추상화된 개념 혹은 물질적인 것도 아닌 신비한 그 무엇이다. 남성들은 종종 “내면의 숭고한 경험과 외부의 신체적 끌림 사이에서 방황하거나 분열”된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욱 자신의 아니마를 통제할 수 없는 스스로의 한계를 깨달아야 한다. “하나의 현

실을 둘로 쪼개면 억압된 부분이 (생략) 부정적인 양식으로 나타나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⁴²⁾ 그런 의미에서 단테가 지옥과 천국에서 만난 어두운 여성 상들은 베아트리체, 성모, 루치아의 그림자로 기능하는 악이지만, 결국 통합되어야 할 중요한 존재들이다.

융은 신비로운 장미의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교회가 에로스를 억압하는 상황을 읽어낸 중세의 떠돌이 음유시인(Troubadour)들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는데⁴³⁾ 역시 연약한 여성성을 넘어서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해석이 선악의 통합에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한 것일 수 있겠다.

결 론

융은 신화 연구를 통해, 이집트의 세트(Seth), 페르시아의 아리만(Ahrimann), 영지주의의 데미우르그스(Demiurge)등이 사탄의 존재와 가깝다고 언급한 바 있다.⁴⁴⁾ 융이 언급한 신화 속 악 상징 중, 특히 이집트의 8개의 신이 합쳐진 “오그도드(Ogdoad), 즉 이중적 사위(四位: double quaternity)”⁴⁵⁾의 개념은 악의 존재를 신성한 신의 개념 속에 통합시킨 것으로 기독교 교리와 신학에 충실하고 이분법적인 분별을 넘어서 악의 문제와 씨름하는 현대인에게 영감을 준다. 융이 높게 평가한 불교의 만달라 상징도, 단테가 묘사하는 천사의 빛남에 조응하는 12명의 사도 상 처럼 원형적 통합의 한 예일 수 있다.⁴⁶⁾

선한 하느님과 달리 물리쳐야 할 악의 존재에 대한 기독교적 전통과 관련해, 융은 에페소서 2. 14를 인용해 천사와 사탄이 결국 하나로 통합될 것이라는 희망도 내비친다. “두 인간을 하나의 새 인간으로 창조하시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양쪽을 한 몸 안에서 하느님과 화해시키시어, 그 적개심을 당신 안에서 없애셨습니다. 멀리 있던 여러분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시고 가까이

42) Von Franz ML, 이부영 · 이광자(역) (2021): 《민담속의 그림자와 악》, 한국융연구원, 서울, pp138-139. Von Franz ML (1995): *Shadow and Evil in Fairy Tales*, Shambhala, Boston and London, pp.102-103.

43) Jung CG (1976): CW 18, *The Symbolic lif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759.

44) Jung CG (1977): CW 11, *Psychology and Religion*, pp279-280.

45) Jung CG (1977): Ibid., pp311-315.

46) Jung CG (1977): CW 8, *The Structure and Dynamic of Psych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495.

있던 이들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통하여 우리 양쪽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에페소서 2 14-18)라는 구절은 결국 신비한 합일(*unio mystica*)이며 이런 과정에서, 의식은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어두운 나락에 떨어질 수 있지만⁴⁷⁾ 다시 또 회복하여 자기로의 회복으로 향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안의 악을 인지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 작업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체험해야 하는 힘든 과정이어야 한다. 내 안에 존재하는 선하지 못한 부분, 혹은 악마적인 태도와는 대면은 그만큼 쉽지 않다.

그렇다면 왜 지금 다시 단테의 신곡인가. 단테가 의식적으로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단테는 죽음에 이르는 억압과 소외와 고립과 공포의 문턱에서 살아나온 사람이다. 현실뿐 아니라 내면에서 상징적으로 천국, 연옥, 지옥을 경험했고, 그 체험이 신곡이라는 걸작을 탄생하게 한 토양이 되었다. 그가 표현하는 고통스런 심상을 최선을 다해 충실히 따라간다면 기독교적 선악의 상징을 뛰어 넘는 통합의 체험을 하게 될지 모른다. 분열과 대립이라는 병적인 콤플렉스에 사로잡혀서, 외부의 악을 응징한다는 도덕이라는 미명으로 더 미숙하고 병적인 선택을 계속하는 현대인들에게 더 간절하게 필요한 내면의 여정이 아닐 수 없다.

단테는 개인의 고난과 체험을 넘어서는 선악에 대한 원형적인 콤플렉스의 다양한 변주를 보여준다. 신곡에는 천국, 연옥, 지옥으로 공간이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고 등장인물 중 대부분이 명백하게 선악의 구분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단테가 과연 현대 융 심리학의 관점으로 볼 때 성공적인 체험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언할 수가 없다. 다만 그가 신곡을 통해 자신을 박해하거나 증오한 사람들을 악의 화신으로 묘사하면서 그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름 상징적으로 처리하고, 마음 속의 분노를 승화시켰다면 이는 단테라는 한 개인이 선택한 인격의 통합의 예일 수 있겠다. 또한 신곡의 독자들도 역시 천국, 연옥, 지옥의 군상들을 만나면서 내면의 악함을 대면하여 그들을 통합할 수 있다면 텍스트에 있는 선악 상징이 치유적으로 작동하였다는 뜻이기도 하겠다. 반대로 신곡의 군상들을 피상적인 사회적 맥락에서만 이해하며 내 안의 악함을 보지 못한다면 인격적 통합의 길과는 반대로 갈 위험도 있다.

47) Jung CG (1978): CW 14, *Mysterium Coniunction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171.

신곡 모티프는 이후 기욤 드 드기에비유(Guillaume de Deguileville)의 영혼의 순례(The Pilgrimage of the Soul 1358), 존 버넌(John Bunyan)의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 1678), 괴테의 파우스트 등 존재의 근원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인본주의적 고민을 하게 되는 근대 문학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다. 특히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 죄와 벌, 백치, 톨스토이의 부활 등에서 다루었던 선악의 문제는 단테의 선악 체험에 대한 답이자 변주가 아닐까 싶다. 단테의 신곡에 대한 무수한 평론과 연구서, 신곡의 상상력에 근거한 로맹의 지옥의 문, 리스트의 단테 교향곡 등등 타 분야에서도 계속된다. “선악”이라는 인간 심성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고전과 당대 문학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시각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리라.

예술에 심리학의 렌즈를 들이대어, 끼워 맞춘 증상들만 본다든가, 창작자를 심리적 틀로 단순화한다면 예술이 갖는 아름다움과 신비로운 힘을 잃게 된다. 특히 상징과 비유들을 암호 코드를 풀 듯 기계적으로 신곡을 해석한다면 성과 없는 상투적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곡에 나타난 선악 주제를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은 여전히 악과 관련된 갈등으로 혼란스러운 내적 체험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길 잃은 단테의 영혼이 지옥으로 하강했지만 다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신곡의 다른 독자도 필자와 같이 무의식의 깊은 어두움으로 내려가 안과 밖의 악을 대면하면서 개성화의 힘든 여정을 계속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자기 안의 악함을 대면하는 과정은 그러나 상당 부분 고통과 허무로 가득하다. “하느님께서는 좋든 나쁘든 감추어진 온갖 것에 대하여 모든 행동을 심판.”(코헬렛[Ecclesiastes] 12: 11)하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값을 받게(2 코린 5, 10)”한다. “망망도 하다. 잡초를 헤치며 쫓아가 찾는구나/물 넓고 산 멀고 길 또한 깊은데/지치고 힘없어 갈 곳 찾기 어려워라/다만 들리네. 때늦게 매미 한 마리 단풍나무에서 우짖는 것이.”⁴⁸⁾라고 이부영이 선시를 인용했듯이, 인생의 여정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로와 같고, 그 미로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내 안의 악함이다. 선악에 대한 절대적인 판단은 그저 “혼과 영을 가르고 생각과 속셈을 가려내는(히브

48) 이부영 (2016): 분석심리학의 탐구 3부작 ③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서울, p278.

4. 12)” 절대자의 뒤편에 자신안의 악을 대면하는 과정은 항상 혼란스럽고 때론 무의미한 작업처럼 느껴진다. 그럼에도 외부의 선악에 대한 도그마적 판단 대신, 내 안에 있는 선악을 모두 인정하고, 떨어지고 올라가는 과정이 없다면, 어떻게 진실한 참 자기를 찾는 과정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

융은 단테가 중세의 신학적 전통에 충실한 사람으로서, “신은 최고선(*Summum bonum*)”으로서 악을 하느님의 원숭이(ape of God)이나 얼굴이 세 개인 사탄”이라는 이분법으로 설정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⁴⁹⁾ 그러나, 저자가 이해한 단테가 묘사한 악의 존재는 하느님의 반대인 그림자로서의 추상적이고 단순한 상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인간 군상의 다양한 모습에서 변주하는 구체적인 표현들로 유추할 수 있도록 충실히 묘사했기 때문에 수 백 년이 지난 후 현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에 숨어 있는 악을 들여다 보는 의미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신곡이 중세 문학에서 근대 문학으로 가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평가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신곡의 독자들이 고대인들과 다르게, ‘악함’을 무서운 몸을 가진 괴물로 하늘에 있는 외부적 존재의 속성이 아니라, 추기경이건, 큰 스님이건, 그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라는 점을 환기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았던 김수환 추기경은 다큐멘터리 필름에서 참으로 죄가 많아 지옥불에 떨어질까 두렵다고 말년에 고백한 바 있다.⁵⁰⁾ 역시 불교계의 스승이었던 성철 스님도 내 죄가 수미산을 덮을 것이고 유언으로 자신이 깊이 후회하는 죄인이라는 유언을 남겼다.⁵¹⁾ 이들 두 종교 지도자들이 악을 보는 태도는 융이 사위를 인정하고, 우리 안의 악을 대면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개인적 콤플렉스를 인식하고 집단 무의식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려는 노력은 특히 치료자 에게도 꼭 필요한 숙제다. 자기 성찰 대신 물질적이고 피상적인 의식의 세계에 습관적으로 머물게 되는 필자의 과제이기도 하다. 인간 원형에 대한 깊은 성찰은 단테의 신곡이 “신성한 것에 대한 성실하고 주의 깊은 관

49) Jung CG (1977): CW 11, *Psychology and Religion*. p172.

50) 김수환 (2010): <우리 안의 그 사람 김수환 추기경> DVD., 평화신문.

51)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본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1987. 4. 23 조 선일보

조의 자세인 렐리기오(religio)⁵²⁾와 통한다.

참 고 문 헌

- 이부영 (2016): 분석심리학의 탐구 3부작 ③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서울.
- 임병철 (2014): 단테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보카치오와 페트라르카 논쟁 《서양중세사 연구》, 34. 한국서양중세사학회.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2005): 《성경》,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서울.
- Alighieri D, 최민순(역) (2021): 《단테의 신곡 상》, 가톨릭출판사, 서울.
- Alighieri D, 허인(역) (2017): 《신곡》, 동서문화사, 서울.
- Aquinas T (1998): *Thomas Aquinas Selected writings*, Penguin books, London.
- Barbi M (1933): “Dante: Vita, Opera e Fortuna”, *Encyclopedia Britannica*.
- Benton W(Publisher) (1969): *Encyclopedia Britannica*, Vol 7, Chicago.
- Benton W(Publisher) (1969): *Encyclopedia Britannica*, Vol 12, Chicago.
- Bressan D (2016): Dante’s Inferno, The Geology of Hell. <http://historyofgeology.fieldofscience.com/2>.
- Digital dante.columbia.edu. *The Divine Comedy with Commento Baroliniano*. The editors of Encyclopedia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Gerard-of-Cremona>.
- Esteves JA (2021): Pope Francis: Dante, who died 700 years ago is still a ‘prophet of hope’ today. America the Jesuit Review <https://www.americamagazine.org/politics-society/2021/03/25/pope-francis-dante-prophet-hope>.
- Frazer JG, 신상용(역) (2017): 《황금가지》, 동서문화사, 서울.
- Jacoff R, ed (2007): *Cambridge Companion to Da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Jung CG (1976): CW 18, *The Symbolic lif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77): CW 8, *The Structure and Dynamic of Psych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77): CW 11, *Psychology and Relig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78): CW 14, *Mysterium Conunction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80): CW 9i., *The archetype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Mambrol N (2021): *Analysis of Dante’s Divine Comedy Literary, Theory and Criticism*, <https://Literariness.org>.
- Mazzarella A, 김덕규(역) (2021): 《단테와 용 I: 신곡의 분석심리학적 이해(개론과 지
- 52) 이부영 (2016): 앞의 책, p117.

옥편)», 융심리학 연구소, 서울.

New International Study Bible (2002): Jondervan, Chicago.

O'Neill T (2016): "Isidore, *De Orbe in Etymologiae XIV.2*", *The Great myths 1: the Medieval Flat earth. History for Atheists*,

Pieper J, 신창석(역) (2011): 《토마스 아퀴나스 그는 누구인가》, 분도출판사, 서울.

St. Augustine. Tr. by Bettenson H (2003): *Concerning the City of God against the Pagans*, Penguin Books, London.

Saunders W (2020): *What are the symbols of the four Evangelists? Catholic exchange*.

Von Franz ML, 김현진(역) (2019): 《창조신화: 인간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의식화 과정의 모델》, 한국융연구원, 서울.

Von Franz ML, 이부영 · 이광자(역) (2021): 《민담속의 그림자와 악》, 한국융연구원, 서울.

Shim-Sŏng Yŏn-Gu 2022, 37 : 2

〈ABSTRACT〉

**Understanding of Divine Comedy through
Jungian Perspectives: With Historical and Literary Contexts**

Nami Lee, Ph.D., M.D.*

Symbolic meaning underneath good and evil motifs in *the Divine Comedy* was analyzed based on its historical, theologic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Contemplating psychological structure and collective psyche in divine comedy with the perspective of Dante's era, brief analyses of various mythological elements, such as mythical beasts, fallen angels, cursed space and time, and femininity, were attempted in this paper. The *Divine Comedy* lustrously responds to modern man's existential questions about divinity and the opposing dark side of the human psyche. It helps restore the significant connection between the *religio* and conscientiousness toward the *imago Dei* and shadow.

KEYWORDS : Dante; *Divine Comedy*; Analytical psychology;
Symbols of "the good and the evil".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